

# 은행권, 자율배상 적극 참여... 이르면 내달 배상금 지급

## H지수 ELS 손실 사태

우리은행, 금감원 분쟁조정안 수용  
하나·농협·신한, 배상안 본격 논의  
금융권 “당국 차원 압박 통한 것”

우리은행이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먼저 홍콩恒生중국기업지수(H지수) 관련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에 대한 자율배상에 나선다. 하나은행과 농협은행도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H지수 ELS 자율배상안을 논의하기로 하면서 금융당국의 자율배상 ‘압박’이 성공했다는 평가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H지수 ELS 투자자에 대한 자율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 450여명을 차례로 접촉해 내용을 안내하고 본격적인 조정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의 경우 개별적인 조정비율



시중은행이 H지수 ELS 손실관련 자율배상에 나선다. 서울시내 시중은행 ATM기의 모습. /뉴시스

협약과 동의를 마치고 나면 일주일 이내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자별 고려 요소가 다르고, 개별협약이 필수적인 만큼 배상 비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우리은행의 H지수 ELS 평균 배상 비율은 40% 수준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의 H지수 ELS 판매 규모는 주요 은행 중 가장 적은 415억원이고, 다음달 첫 만기 도래분 43억원의 손실률은 45% 안팎으로 예상된다. 예상 손실액에 평균 배상 비율을 단순

적용하면 총 배상 규모는 약 100억원으로 보인다.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 신한은행 등도 배상안 결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나은행은 오는 27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H지수 ELS 자율배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은 28일에, 신한은행

은 이르면 다음 주 중 관련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홍콩 ELS는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로, 홍콩 H지수가 급격히 하락하며 상반기에만 손실 규모가 6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홍콩 ELS의 총 판매 잔액은 19조 3000억원으로, 국민은행이 8조 1972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신한은행(2조 3701억원), 농협은행(2조 1310억원), 하나은행(2조 1183억원), SC제일은행(1조 2427억원), 우리은행(413억원) 순이다.

올해 상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홍콩 H지수 ELS 물량을 기준으로 은행별 예상 손실 배상액(투자자 손실률 50%, 평균 손실 배상비율 40% 가정)을 산정해 보면, KB국민은행이 9489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신한은행(2666억원), NH농협은행(1476억원), 하나은행(1466억원), SC제일은행(1237억원), 우

리은행(73억원) 순이다.

이처럼 은행권이 자율배상 움직임을 보이면서 금융당국의 ‘압박’이 통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8일 은행연합회 이사회 후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와 다음 주 각 은행의 이사회와 주주총회가 있기 때문에 절차를 걸쳐 각사의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본다”며 “그 과정에서 당국과 소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마지노선’을 제시한 것과 동시에 이달 내로 입장을 정리하라는 은행권을 향한 압박으로 해석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은행이 선제적으로 자율배상을 실시한다고 하니 다른 은행들도 따라서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 과정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마지노선을 제시하면서 기간을 맞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 여의도 아파트 재건축 속도 ‘한양·삼부’ 등 신고가 행진

‘분담금 0원’ 등 건설사 적극 참여  
한양아파트 35평형, 22.8억 거래

부동산경기 침체에도 간만에 재건축 수주전이 펼쳐졌던 서울 여의도 일대의 집값이 들쭉이고 있다. 시공사 선정 등 재건축 속도를 내고 있는 한양아파트는 거래가 됐다하면 신고가를 기록했고, 호가가 뛰었다.

다만 아파트별로 다소 온도차는 있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만큼 수익성이 좋아도 실거주가 힘들다고 평가되는 경우 가격을 내려도 거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2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일 여의도 한양아파트 전용 109.42㎡(12층)는 22억 8000만 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경신했다. 작년 5월 19억 1000만 원(8층)에 거래되던 것이 6월 19억 9000만 원, 11월 22억 원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현재 나와있는 매물들의 호가는 23억 원을 웃돈다.

한양은 ‘여의도 1호 재건축’으로 불릴 만큼 속도는 일단 빠른 편이다. 지난 23일에는 현대건설로 시공사 선정도 마무리했다. 여의도 재건축을 선점하기 위해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최근 공사비 급증에도 700만원대 공사비가 제시되는가 하면 동일 평형 입주 시 ‘분담금 0원’ 조건도 나왔다. 1975년 준공된 한양은 기존 8개 동 588가구 규모에서 최고 56층, 5개 동 아파트 992가구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여의도의 A공인중개업소 대표는 “한양에서 신고가를 기록한 평형(35평)의 대지 지분은 약 13평으로 여의도 다른 아파트와 비교하면 적은 편이지만 재건축의 특

성상 추진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점에서 최근 문이 부쩍 늘었다”고 전했다.

여의도 아파트 지구는 1971년~1978년에 지어진 16개 단지로 모두 재건축 연한을 한참 넘겼다. 노후화에 부진했던 집값이 들쭉이기 시작한 것은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이 나오면서다.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면서 재건축의 사업성이 높아졌다.

재건축 단지들 가운데 사업진행이 빠른 곳은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삼부아파트 전용 77.69㎡(12층)는 이달 7일 23억 원에 거래돼 전 최고가 20억 2500만 원에서 큰 폭으로 올랐고, 광장 3~11동 전용 116.53㎡(9층) 역시 24억 9000만 원으로 신고가를 새로 썼다.

주변에 신축 아파트가 사실상 없다보니 거래가격에 대해 평가하기는 힘들다. 옛 문화방송(MBC) 터에 ‘브라이트 여의도’가 여의도 자이 이후 18년 만에 신규 공급됐지만 분양가 상한제 등을 이유로 민간임대 후 분양으로 선회했다. 올해 2분기부터 조기에 분양 전환이 가능해 전환가격은 평당 9000만 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향후 시장 분위기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연장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여의도는 지난 2021년 4월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토허제 구역으로 지정됐고, 다음달 26일 만료를 앞두고 있다.

여의도의 B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아파트를 매수하면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소위 ‘갭투자’가 불가능하다”며 “대지 지분이 상대적으로 큰 곳이라도 소형평형 등 가족단위로 거주하기 힘든 매물은 가격이 오히려 내렸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0



자세히 알아보기

### 여성 건강에 진심이기에 한화손해보험이 차병원과 함께합니다

## 한화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2.0 (무배당)

여성의 건강을 제대로 알아야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니  
여성 생애 주기에 맞춰  
세심하게 보장합니다  
(특약 가입 시)



**배타적 사용권 획득** (3개월, 24년 01월 23일부터 적용)  
**유방암(수용체타입) 진단비(특약) | 출산장려 가입력 보존 서비스**

보험 계약자는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와 약관을 읽어볼 것을 권유합니다.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 인수 거절 및 보험료 인상,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 한도, 면책 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 보호 대상 금융 상품의 계약 합계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 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한화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http://www.hwgeneralins.com>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114903호(2024.01.29)

**쉽고 편하게 바로 상담받기** 1833-7667

